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박인옥·이정화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Self-Esteem of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Juveniles

Park, Inok · Lee, Jeonghwa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the self-esteem of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juveniles.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17 non-delinquent juveniles living with their parents as high school students and 98 delinquent juveniles aged 15~18 who live in detention centers for adolescenc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cross-tab,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PC window program.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t was found that non-delinquent juveniles show a more open communication style with their parents than delinquent juveniles. Furthermore, a high level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was associated with high self-esteem in adolescents. Second, although physical environment such as family type or economic status influences an adolescents' self-esteem, the degree of positive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has a much greater effect on an adolescents' self-esteem. Finally, in terms of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on self-esteem,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has a stronger effect on delinquent juveniles than non-delinquent juveniles. These results show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style between parent and child, especially for families with delinquent juveniles.

Key words: delinquent juvenile,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family environment

I. 서론

지난 5년간 청소년 범죄율을 살펴보면 2003년에 총 범죄 대비 4.3%였던 것이 2005년에는 3.6%까지 감소하였다가 2006년 3.9%, 2007년에 다시 4.6%로 증가추세(보건복지가족부 2008)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높은 청소년 범죄는 상당부분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사회화 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매개체로서 인간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정환경은 가족원의 행동이나 인성특성 및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정이 흔들리면 인간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하기 어렵게 된다. 핵가족화와 취업여성의 증가, 이혼의 증가, 주말부부의 증가, 자녀수 감소, 주거생활변화 등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변화는 가족문제의 증가와 함께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최인경 2001).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비행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최언용 1991)에서는 가정환경, 특히 가정의 해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하였고,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청소년 비행의 주원인이 된다는 연구(김기정 2002)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핵가족화와 그에 따른 가정의 구조적 결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의 형성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Freud(1958) 이후 Erikson(1959) 등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 내 의사소통의 단절, 이중메시지의 전달 등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사회부적응 및 정신건강을 위협하며, 청소년비행을 낳는 원인(Ginott 1980)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격발달과 환경적응 및 긍정적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방영자 1997; 서미경 2004).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정선미(2007)는 부모자녀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선행연구(김영란·안민주 2005; 강상희 2001; 이영숙·김정옥 2002)에서는 가정의 해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같은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가정환경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갖는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한편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Nye(1958)는 결손가정이 비행의 단일원인으로 추정되던 시기에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문제 없는 결손가정보다 문제가 있는 일반가정이 비행 청소년을 만든다’고 주장함으로써(강상희 2001) 결손가정만이 비행의 원인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최근 김연수(200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비행이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에 많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월수입이 높은 고소득층이거나 부모의 애정과 통제가 결핍된 가정의 청소년들이 높은 비행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비행에 대해 가정의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기능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가지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가족유형, 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연령 등 가정환경과 부모자녀의사소통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환경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하여 가정

환경과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가정환경요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고 설명변수에 차이가 난다면 변수 간 관계의 역동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일반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환경변인, 부모자녀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청소년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행복감 및 인생 만족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광범위한 연구주제이며 개념적으로 학자에 따라 여러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양원경 1999).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정 및 기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자아개념, 자아존중, 자아정체감, 자아평가, 자아효능감, 자아가치감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박영애 1995).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자아존중감은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간다. Joseph(1974)은 지각된 수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타인들에 의한 무조건적 사랑과 수용이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고(김양숙 1995), Rosenberg(1965)는 반영된 평가, 사회적 비

교, 자아 귀인, 심리적 중요성의 원리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Maslow는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치 있고, 자신감 있고, 능력있으며,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느끼며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면 열등하고, 나약하고, 무력하게 느낀다고 하였다(조현준 등 2002). 자아존중감의 형성, 변화, 발달은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지만 다른 발달 단계보다도 청소년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학교 부적응이나 비행, 낮은 학업 성취 등 여러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된다. Weiner(1982)는 많은 비행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심각한 정도의 거절을 경험했거나, 애정과 관심을 박탈당했다거나 혹은 의미 있는 타인의 상실로 인한 외상 경험으로 인해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적고, 열등감에 사로 잡혀 있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비행청소년이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일반청소년보다 낮다고 한다(김은주 2000; 방영자 1997; Reasoner 1994; Ruchikin 등 1999). Reasoner(1994)는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의 원인임을 주장하면서, 자아존중감을 높여줌으로써 청소년 비행이 교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처럼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비행에 중요한 변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른 한편, 청소년의 비행경험이 이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aplan, 1978)도 있다. 이를 정익중(2006)은 Kaplan의 자아강화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즉, 가족이나 학교 등 전통적인 준거집단의 기준을 잘 따르지 못해 그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 때 비행행동이 자아강화의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대안적인 행동양식이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이 비행행동에 보다 쉽게 개입된다고 한다. 이들은 비

행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주류집단에서 거부되었던 지위를 비행또래집단으로부터 얻게 되며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고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주연(2010)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의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비행행동의 결과 자아존중감이 회복,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매우 복잡적임을 알 수 있다.

2.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가정환경특성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홍순혜(2004)의 연구결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즉, 부모의 학력이 높고 부모가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황진숙 외(2005)의 연구에서도 자신이 상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을 선호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서정희(2009)의 연구에서도 용돈수준이 높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정(2003)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과 양친 가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한 연구(오승환 2001; 홍순혜 2004)에서도 두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환경특성이 양호한 경우 청소년이 속한 생태학적 환경은 좋아지며,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적고, 가족이 지닌 풍부한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전반적으로 순기능적 가족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완정 2003)이다.

한편, 청소년기는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성장시키는 시기이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매개체로서 의사소통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긍정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부정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 부모 자녀간 갈등이 심해지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 시기 부모자녀의사소통방식은 매우 중요하게 된다(최인경 2001). 만약 부모가 이중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비난 또는 무시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 자녀는 가정이라는 체계에서 스스로를 분리하지 못하게 되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2세에서 1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Felson과 Zielinski(1989)의 연구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Bienvenu와 McClain(1970)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청소년의 부모들은 부모자녀의사소통에서 자녀에 대한 수용이 부족하고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이진용 1990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 김인욱(2006)은 부모와 개방형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한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남정홍(2001)은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폐쇄형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연(200)은 중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수용받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자녀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경제수준, 가족유형, 부모학력, 부모직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정환경 변인과 부모자녀의사소통 변인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집단을 비교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을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하여 이 두 변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가정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소년원 두 곳과 일반고등학교 한 곳을 임의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소년원생 150명과 일반고등학생 180명, 총 330명의 남학생이었으며, 이 중 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는 경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일반청소년과 같은 연령대인 만 15세~18세에 해당하지 않는 비행청소년을 제외한 215명(일반청소년 117명, 비행청소년 98명)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소년원에 재소중인 학생의 95% 이상이 남학생이므로 비교의 용이를 위해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정환경

조사대상자의 가정환경은 개인특성과 가정환경을 포함한다. 개인특성은 연령, 가정환경은 가족유형, 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연령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1982년 Barnes & Olson이 제작한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선미(2003)가 번안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위척도는 개방적 의사소통척도로서 상호간에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두 번째 하위척도로는 문제적 의사소통 척도로서 이는 가족구성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대방을 불신하며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 및 경계심이 있는 부정적인 면을 측정하였다.

의사소통 척도는 각 하위 척도별로 개방형 10항목과 폐쇄형 10항목으로 이루어져있고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가능한 총점수 범위는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와 폐쇄형의사소통 척도 각각 10점에서 50점 사이이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긍정적이고, 폐쇄형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에 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93, 폐쇄형의사소통의 경우 .79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충희(1995)가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긍정적 문항 5개 점수와 부정적 문항 5개를 역산한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였고,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84이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win 18.0을 이용하였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환경, 부모자녀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의사소통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 그리고 사후검정으로 Duncan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정환경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1) 가정환경변인의 일반적 경향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환경변인으로서 연령, 가족유형, 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연령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비행청소년은 만18세가 32.71%, 만17세 31.6%, 만16세 26.5% 순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만16세가 66.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모두 친부, 친모인 비행청소년은 40.8%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친부만 있는 경우 13.0%, 친부계모인 경우 15.3%, 친모만 있는 경우 11.2%, 친모계모인 경우 7.1% 순이었다.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친부친모인 경우가 8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가족유형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가운데, 일

반청소년은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1%로 많았던 반면 비행청소년은 ‘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23.5%로 많았다. 따라서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은 아버지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가 77.6%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일반청소년은 대졸이상인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고졸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로써 비행청소년 부모의 학력이 일반청소년 부모의 학력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서도 일반청소년의 아버지는 사무직인 경우가 59.1%로 가장 많은 반면, 비행청소년의 아버지는 근로판매직인 경우가 55.3%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은 일반청소년은 어머니가 무직 또는 기타인 경우가 46.3%로 가장 많은 반면, 비행청소년은 어머니가 생산직/판매직인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다. 부모연령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4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이었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개방형의사소통, 폐쇄형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과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 대하여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부모와 보다 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개방형의사소통 정도를 비교해보면 비행청소년은 평균 2.87, 일반청소년은 평균 3.76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폐쇄형의사소통을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은 평균 2.82이고, 일반청소년은 평균 2.68로 나타나, 폐쇄형의사소통 총점에서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자아존중감은 1-5점 범위에서 평균 3.4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Delinquent	Non-delinquent	χ^2
		N(%)	N(%)	
Age	15	9(9.2)	6(5.1)	49.35***
	16	26(26.5)	78(66.7)	
	17	31(31.6)	30(25.6)	
	18	32(32.7)	3(2.6)	
	total	98(100.0)	117(100.0)	
Family type	both real father & real mother	40(40.8)	104(88.9)	59.84***
	real father only	25(25.5)	3(2.6)	
	real mother only	11(11.2)	7(6.0)	
	real father & stepmother	15(15.3)	2(1.7)	
	real mother & stepfather	7(7.1)	1(0.9)	
	total	98(100.0)	117(100.0)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6(6.1)	27(23.1)	30.68***
	middle	69(70.4)	80(68.4)	
	low	23(23.5)	10(8.5)	
	total	98(100.0)	117(100.0)	
Education level of father	under high school graduate	66(77.6)	48(44.4)	21.68***
	college graduate & more	19(22.4)	60(55.6)	
	total	85(100.0)	108(100.0)	
Education level of mother	under high school graduate	51(76.1)	70(67.3)	1.53
	college graduate & more	16(23.9)	34(32.7)	
	total	67(100.0)	104(100.0)	
Father's job	professional/management	10(13.2)	13(11.8)	26.05***
	clerical	18(23.7)	65(59.1)	
	blue collar /self-employed	42(55.3)	25(22.7)	
	unemployed	6(7.9)	7(6.4)	
	total	76(100.0)	110(100.0)	
Mother's job	professional/management	3(4.9)	8(7.4)	27.41***
	clerical	5(8.2)	35(32.4)	
	blue collar /self-employed	29(47.5)	15(13.9)	
	house wife	24(39.3)	50(46.3)	
	total	61(100.0)	108(100.0)	
Father's age	30~39	2(2.0)	4(3.4)	2.83
	40~49	59(60.2)	81(69.2)	
	50 and over	37(37.8)	32(27.4)	
	total	98(100.0)	117(100.0)	
Mother's age	30~39	8(8.2)	6(5.1)	19.36***
	40~49	55(56.1)	97(82.9)	
	50 and over	35(35.7)	14(12.0)	
	total	98(100.0)	117(100.0)	

***p<.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self-esteem (N=215)

Variables	Delinquent	Non-delinquent	t
	M(SD)	M(SD)	
Open communication	2.87(.76)	3.76(.83)	-8.13**
Faulty communication	2.82(.67)	2.68(.76)	1.37
Self esteem	3.34(.77)	3.46(.65)	-1.26

**p<.01

보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34이고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46 으로서 전체 자아존중감 정도에서 비행/일반청소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대상 비행청소년은 과거 가족이나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

해 자아존중감이 낮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 이미 소년원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Kaplan(1978)의 이론처럼 비행행위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자아강화(Self-enhancement)가 이루어져 자아존중감이 낮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비행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가 일반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폐쇄형의사소통과 자존감의 경우에는 일반청소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비행청소년

Table 3. The self-esteem by the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Delinquent			Non-delinquent		
	M(SD)	F/t	D	M(SD)	F/t	D
Age	15	3.46(.67)		3.37(.86)		
	16	3.41(.66)	.15	3.38(.61)	.66	
	17	3.36(.77)		3.18(.85)		
	18	3.43(.78)		3.44(.81)		
Family type	both real father & mother	3.45(.70)		2.61*		3.40(.77)
	not real parents	3.06(.73)	3.10(.76)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3.86(.58)		3.85(.57)		
	middle	3.38(.70)	12.62***	3.38(.79)	3.08	
	low	3.03(.64)		3.06(.71)		
Education level of father	under high school graduate	3.35(.71)	-1.51*	3.27(.79)	-1.28	
	college graduate & more	3.52(.73)		3.54(.82)		
Education level of mother	under high school graduate	3.37(.70)	-2.38*	3.29(.84)	-1.28	
	college graduate & more	3.65(.73)		3.58(.77)		
Father's job	professional/management	3.44(.73)	.60	3.66(.68)	1.59	
	clerical	3.50(.70)		3.56(.84)		
	blue collar /self-employed	3.37(.70)		3.26(.76)		
	unemployed	3.29(.79)		2.98(.87)		
Mother's job	professional/management	3.62(.78)	.79	3.55(.38)	.18	
	clerical	3.43(.63)		3.48(.41)		
	blue collar /self-employed	3.35(.82)		3.36(.90)		
	house wife	3.53(.69)		3.53(.88)		
Father's age	30~39	3.18(.55)	.46	2.70(.14)	1.04	
	40~49	3.43(.73)		3.40(.81)		
	50 and over	3.37(.69)		3.26(.72)		
Mother's age	30~39	3.59(.56)	3.12	3.39(.66)	.73	
	40~49	3.45(.72)		3.41(.84)		
	50 and over	3.19(.67)		3.21(.68)		

D: Duncan test

*p<.05, ***p<.001

년의 경우, 가족유형, 경제수준, 부모학력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령, 부모직업, 부모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비행청소년은 부모가 모두 친부모이고 경제수준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의 경우 양친가족이 비양친가족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결과는 친부모를 둔 가정의 아동이 결혼가정의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영란·안민주 2005; 강상희 2001; 문혜경 2001)와 일치한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자아존중감 평균이 3.8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인 경우가 평균 3.38, 하인 경우가 평균 3.03 순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연구결과는 가정형편이 부유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이영숙·김정옥 2002; 김창곤 2006; 서현주 2007)와 일치한다. 부모학력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창곤 2006; 이영숙·김정옥 2002; 서현주 2007)와 일치한다. 부모직업이나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은 경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들(강영자 1999; 문애숙 2006; 이희자·김경원 2002; 강영자 1999)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3. 부모자녀의사소통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개방형의사소통 수준과 폐쇄형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개방형의사소통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두 집단 모두 부모와의 개방형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폐쇄형의사소통에서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각각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폐쇄형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아,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행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폐쇄형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음을

Table 4. The self-esteem by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Variables	Delinquent			Non-delinquent		
	M(SD)	F/t	D	M(SD)	F/t	D
Parent-child communication	open	high	4.04(.52)		3.89(.62)	
		middle	3.33(.64)	14.10***	3.41(.59)	10.52***
		low	2.05(.59)		3.07(.65)	
	faulty	high	3.56(.99)		3.64(.44)	
		middle	3.11(.87)	9.71***	3.36(.62)	5.44**
		low	2.47(1.06)		3.88(.95)	

D: Duncan test

p<.01, *p<.001

Standard of high-middle-low group: M±SD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자존감도 높게 나타나,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은 높고, 폐쇄형 의사소통은 낮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일반 청소년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4.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가 .6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범위가 1.19에서 3.34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았다.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두 집단을 나누어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정환경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모델 1에서는 가정환경변인 중 가족유형, 경제수준, 부모학력이라는 변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족유형은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는데 비양친가정은 0, 양친가정은 1로 부호화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입된 변수에 의사소통의 두 차원인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추가로 투입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1)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변인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1단계에서는 경제수준, 가족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21%였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양친가정이 비양친가정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을 추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2단계

결과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으며 그 설명력은 41%로 1단계에 비해 20%가 증가하였다. 1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경제수준과 가족유형의 영향력은 의사소통 변수가 투입되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와 폐쇄형 의사소통을 얼마나 적게 하는가’보다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라는 것이다. 결국 개방형 의사소통은 가정의 경제수준, 가족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만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n the self-esteem of delinquent Juveni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I		Model II	
	B	β	B	β
Family type#	-.62	-.32*	-.25	-.13
Subjective economic status	.62	.39**	.37	.23
Education Level of father	.12	.06	.00	.00
Education level of mother	.21	.11	.15	.08
Open communication			.54	.52***
Faulty communication			.15	.13
C	1.93		.56	
R ²	.21**		.41	
R ² change			.20***	

*p<.05, **p<.01, ***p<.001

Family type : Real parents family=0, Not real parents family=1

2)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정환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1단계에서는 경제수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유형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갖는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즉 양친가정인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외에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을 추가하여 중다회귀분석한 2단계 결과에

서는 역시 개방형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추가설명력은 6%로 나타나 총 설명력이 25%가 되었다. 한편 1단계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던 가족유형과 경제수준은 2단계에서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on the self-esteem of non-delinquent Juveni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I		Model II	
	B	β	B	β
Family type#	-.73	-.20*	-.29	-.08
Subjective economic status	.43	.36**	.07	.06
Education level of father	-.13	-.10	-.18	-.14
Education level of mother	.12	.09	.07	.05
Open communication			.28	.37*
Faulty communication			-.12	-.15
C	2.64		2.82	
R ²	.19***		.25***	
R ² change			.06***	

*p<.05, **p<.01, ***p<.001

Family type : Real parents family=0,
Not real parents family=1

이로써 비행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일반청소년 역시 경제수준, 가족유형 등의 가정환경변인보다 부모와 개방형의사소통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자아존중감에 더 설명력이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와의 개방형의사소통이 갖는 상대적인 의미는 일반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부모와 개방형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폐쇄형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은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정환경변인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수준이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양친가정인 경우 비양친가정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반청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두 집단 모두 개방형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비행청소년의 경우 폐쇄형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데에는 부모자녀의사소통 외에 가족외적인 다른 중요한 변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의사소통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모델에서 가족유형과 가족의 경제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의사소통 변수를 투입한 두 번째 모델에서는 가족유형과 경제수준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개방형의사소통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가족유형, 경제수준과 같은 가정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킬 만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설명력이 큰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경우 모델 2에서 의사소통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갖는 설명력이 20%가 증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변수가 되었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록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라도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라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비행 가능성은 낮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및 경제생활이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히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이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부모-자녀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가정환경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소통과 같은 기능적 측면의 변화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맺기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비행에 방 및 자존감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변인의 추가영향력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의 경우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로,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일반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의 자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년원에 재소 중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원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도록 도울 수 있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일반청소년가정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찾는다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행을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되었다는 점이 제한점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비행을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행을 저지른 시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했다면 가정환경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역시 비행청소년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로써 시간적인 차이가 고려된 연구모형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남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에 적용하기에는 일반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정환경변인, 부모자녀의사소통유형이 일반/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하

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비전형적인 가족유형에 속해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청소년이 높은 자존감을 지키며 잘 적응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상희(2001)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건강행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영자(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5, 121-127.
- 김영애(1991) 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요인 비교 연구 -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2003) 가정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성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2000)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안민주(2005)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제26권. pp.105-124.
- 김인욱(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및 참자기와 거짓자기와의 관계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어머니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연(2010) 비행청소년의 자기애성향과 자아존중감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곤(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청소년복지연구 제8권. pp.91-107.
- 김충희(1995) 해외 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존

- 중감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애순(2006) 구조적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탐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현(2004)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및 가정체계 유형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희(1987)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유형이 청소년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영자(1997)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청소년백서.
- 서미경(2004)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희(2009) 집단미술치료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형성에 미치는 효과.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현주(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1999) 청소년의 과소비 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지역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 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1), 77-104.
- 이영숙·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7(2), 133-159.
- 이완정(2003)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 및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49-60.
- 이지연(2003)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와의 관계. 전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용(1990)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김경원(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지 9(3), 283-295.한
- 정선미(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가을), 133-159.
- 조현준·조현재·문지혜 공역(2002) 성격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98.
-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연용(1991)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1), 151-178.
- 황진숙·고선주·이은희·나영주·박숙희(2005)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개인·가족·학교·인터넷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3-26.
- Beinvenu MI·McClain S(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 62(5), 344-345.
- Erikson E(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 1-171.
- Felson RB·Zielinski MA(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 Freud A(1958)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3, 255-278.
- Ginott HG(1980) 교사와 학생,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책. 해선문화사.
- Kaplan HB(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53-277.
- Reasoner RW(1994) Self-Esteem as an antidote to crime and violence. ERIC Document No Ed 373-281.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chikin V, Martin E, Bruno H(1999) Hopelessness, loneliness, self-esteem and personality in Russian male delinquent adolescents versus control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 466-477.
- Weiner IB(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Y : John Wiley and Sons.